



음나무 / *Kalopanax septemlobus* (Thunb.) Koidz.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음나무속 |
| 과국명 | 두릅나무과 |

| | |
|------|--|
| 과명 | Arali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두릅나무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전국에서 자라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중국; 전국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25m.</p> <p>꽃색 : 녹색, 노란색</p> <p>개화기 : 7월, 8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둥글며 5~9개로 갈라진다. 갈라진 조각은 달걀 모양이고 끝이 짧게 뾰족하며 심장저이다. 손바닥 모양의 맥이 있다. 겉면에 털이 없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.</p> <p>꽃은 8월 초에 피고, 몇 개의 우산모양꽃차례를 이룬다.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갖고 있으며 황록색이다. 꽃을 감싸는 작은 잎은 빨리 떨어진다. 꽃잎과 꽃받침, 수술은 각각 5개이다.</p> <p>열매는 핵과고 거의 둥글며 푸른빛이 도는 검은색이다. 씨앗은 반원 모양이고 2~3개가 있으며 평평하다. 9월 말~10월 중순에 익는다.</p> <p>줄기는 가지에 가시가 많다. 어려서 달렸던 가지는 오래되면 떨어진다.</p> <p>나무껍질은 회갈색이고 불규칙하게 세로로 갈라진다.</p> <p>뿌리를 싸고 있는 바깥 껍질을 해동피라 하여 약재로 이용한다.</p> <p>어릴 때는 음지에 견디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도 자라지만, 성장하면서부터는 빛이 필요하다. 땅의 깊이가 깊고 기름진 곳이 적합하다.</p> <p>대기오염과 병충해에 견디는 힘은 보통이다. 씨앗을 뿌리거나 뿌리를 꽂는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 천연기념물 제164호, 제305호, 제306호, 제363호로 지정되어 있다. 큰 나무로 자라고 대부분 무리지어 자라지 않는다. 어릴 때는 자라는 속도가 빠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더디어진다.</p> |